

No.20161026-001

제목: 범죄소설집

저자: 요시다 슈이치

페이지수: 336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10월 15일



<내용소개>

“인간은 왜 죄를 저지르는 것일까?” 실제 범죄사건들을 소재로 한 5편의 단편 소설집

요시다 슈이치는 현대인의 미묘한 감정과 일상 속에 숨어있는 비밀상성을 탁월하게 포착하고 인간의 부조리함을 균형 있게 그려내는 작가다. 2015년 하반기 화제작인 《분노》는 여성을 살해하고 수 차례 성형하며 2년 7개월간 도피한 이치하시 다쓰야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었다. 이번 신간 역시 실제 사건 사고를 가져와 쓴 글이다.

《범죄소설집》은 실종된 소녀에 대해 계속 죄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치정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마담, 명문가 태생이지만 도박에 깊이 빠져버린 남자, 폐쇄적이고 인적이 드문 마을에서 무너져 가는 노인, 화려한 생활을 잊지 못하는 전 야구선수가 각각 등장하는 5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혼을 빙자해 만난 남성들의 재산을 빼돌린 뒤 살해한 키지마 카나에, 최강의 타자였으나 마약복용혐의로 체포된 전 야구선수 기요하라 가즈히로 등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들이 소재가 되었다. 실화에 기반하지만 논픽션이나 르포처럼 숨겨진 진실을 찾아나가는 내용은 아니고, 단지 이야기의 모티브로서만 작용한다.

〈푸른 논이 Y자 길〉, 〈만쥬히메의 낮잠〉, 〈만물상 젠지로〉, 〈백구백사전〉 등 네 편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주인공의 심리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범죄자 혹은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열결에 휘말린 사람들, 피해자 본인이나 그 유족들의 감정과 비극을 그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바카라 아귀〉에서는 도박에 빠져 막대한 빚을 진 주인공의 내면만 묘사된다. 아무 것도 보고 듣지 못할 정도로 깊이 빠져버리거나,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실망하거나, 자신을 과신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등 누구라도 이해할 만한 감정과 행동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가 이 ‘범죄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인간의 나약하고 일그러진 마음이다. 어떤 것이든 범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은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넣은 데에는 주위 환경과 사람들의 무관심, 비정함도 작용했다는 사실 역시 크게 다가온다.

이미 다수의 매체에서 보도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범인이나 상황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독자들의 상상력은 제한되지만 이야기에 더 몰입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또한 실제 사

건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감정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왜 사람은 죄를 저지르는 것일까? 언제부터 범죄자 조직이 형성된 것일까? 요시다 슈이치는 독자들에게 이런 의문을 던진다. 인간 이야말로 절대 풀리지 않는 불가사의를 안고 있는 최대의 미스터리일 지도 모른다.

<목차소개>

푸른 논의 Y자 길 / 만쥬히메의 낮잠 / 바카라 아귀 / 만물상 젠지로 / 백구백사전

<저자소개>

요시다 슈이치

1968년 나가사키에서 태어났다. 1997년 <최후의 아들>로 문학계 신인상을 수상하며 데뷔하였다. 2002년 《퍼레이드》로 야마모토 슈고로 상, 같은 해에 《파크 라이프》로 아쿠타가와 상을 받았다. 2007년 《악인》으로 마이니치출판 상과 오사라기 지로 상을, 2010년 《요노스케 이야기》로 시바타 렌자부로 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 《분노》, 《동경만경》, 《다리를 건너다》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No.20161026-002

제목: 라스트 나이트(The Last Night)

저자: 야쿠마루 가쿠

페이지수: 272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7월 08일



<내용소개>

얼굴엔 표범 문신, 왼손은 의수인 한 남성의 과거와 비밀을 둘러싼 미스터리 소설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의 삶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바뀌버릴 때가 있다. 옳은 일을 했는데 모두를 재앙에 가까운 불행으로 몰아넣게 된다면 죄책감에 더욱 괴로워하게 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 때문에 복수의 칼날을 갈며 남은 인생을 전부를 바친 남자다.

얼굴에는 표범 문신, 왼손은 의수인 험악한 외모의 남자 '카타기리 타츠오'는 형무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오랜 친구 '키쿠치 마사히로'가 운영하는 작은 이자카야로 찾아간다. 27세에 처음 체포된 것을 시작으로 출소와 입소를 반복하며 인생의 절반을 형무소에서 보낸 그를 선뜻 받아들여주는 이는 친구 키쿠치와 몇 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나카무라 뿐이다. 카타기리는 나카무라를 찾아가 감사 인사와 더불어 또 다른 범행을 앞둔 것처럼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나카무라는 걱정하며 그를 뒤쫓는다. 그 과정에서 카타기리와 이혼한 전처 요코는 자살을 시도하여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 숨졌으며, 홀로 남은 딸은 친부를 원망하며 살아왔음이 밝혀진다.

32년 전 카타기리 타츠오의 인생은 키쿠치의 가게에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며 공갈협박을 한 조직폭력배 '카지와라 시로'를 칼로 찌르며 뒤틀러 버렸다. 초범인데다가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기에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은 면했지만 직장에선 해고당하고 아내에게 이혼당한다. 이후 불량한 무리와 어울려 다니다, 카지와라가 자신의 아내 요코에게 보복성 범죄를 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그 때부터 카타기리의 인생은 오직 복수만을 향해 움직인다. 담당 교도관이 의아해 할 정도로 온화하고 순한 품성을 지닌 그가 왜, 어떻게 네 번이나 범죄를 저지르며 전과자가 되었는지 서서히 드러난다. 카타기리는 마침내 카지와라를 찾아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기회를 만들어낸다. 신주쿠의 공원에서 발포 사건이 일어나 한 남성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며 키쿠치가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

소설은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사건을 5명의 등장인물이 저마다의 시점에서 바라본 내용을 통해, 주인공 카타기리 타츠오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그의 비밀과 최후의 선

택을 궁금하게 만드는 흥미진진한 서스펜스와 더불어, 아내와 딸을 위해 무모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버린 깊은 가족애가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다. 2016년 《침묵을 삼킨 소년》으로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 신인상을 받은 야쿠마루 가쿠다운 수작이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제 1장: 키쿠치 마사히로

제 2장: 나카무라 히사시

제 3장: 마쓰다 히카리

제 4장: 모리구치 아야코

제 5장: 아라키

에필로그

<저자소개>

야쿠마루 가쿠

1969년 효고 현에서 태어났다. 코마자와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5년 《천사의 나이프》로 제 51회 에도가와 란포 상을 받으며 데뷔하였다. 《형사의 눈빛》, 《그 거울은 거짓말을 한다》, 《형사의 약속》등 나쓰메 노부토 시리즈가 인기를 얻었으며 소년범죄와 범죄피해자의 복수를 소재로 한 작품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작품은 《서약》, 《Anonymous Call》 등이 있으며 2016년 《침묵을 삼킨 소년(A ではない君と)》로 제 37회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No.20161026-003

제목: 선생님도 모르는 세계사

저자: 타마키 토시아키

페이지수: 232

장르: 역사, 교양

출간일: 2016년 10월 12일



<내용소개>

유럽·미국 중심의 세계 역사 흐름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최신 지식에 기반해 설명한다

'선생님도 모르는'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이 눈에 띄는 타이틀인데, 이 제목에는 독자들에게 최근의 지식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다. 세계의 역사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해당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당연하며, 독자들도 예전에 제대로 배운 내용이지만 시간이 흐르며 수정돼 새로운 정보를 학습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위치해 있으며 생태학적으로는 다수의 아시아 지역보다 빈곤하다. 중세시대에는 이슬람 세력이 둘러싸여 있었지만 19세기에는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소유하며 힘을 과시하였으며, 현재에도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상업 즉 경제학적 관점에서 풀어낸다.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시기를 다룬 1장에서는, 문명탄생에 대해 잘 언급되지 않던 부분을 다룬다. 어딘가에 정착해 생활하는 정주생활의 시작은 아무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다. 그리스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정말 자유를 위해 싸운 것인지, 막을 수 없었던 지중해 문명의 쇠퇴, 이슬람 문명의 대두, 과대평가 된 상업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제 2장은 유럽이 아시아를 뒤쫓아 온 역전의 시기다. 대서양 노예 무역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근대 세계 시스템을 만들어낸 헤게모니 전쟁의 진실은 무엇인지, 역사를 바꾼 진짜 분기점은 언제였으며 영국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함부르크, 은과 세계의 일체화 등을 설명한다. 제 3장은 영국이 세계의 강대국이 되기까지의 과정이다. 엘리자베스 1세부터 시작된 대영제국, 국제무역상인의 전형이라 볼 수 있는 로빈슨 크루소, 영국인들이 홍차를 많이 마시게 된 이유와 세계의 거리를 좁힌 19세기 증기선의 발달을 살펴본다. 마지막 4장은 근대부터 그 이후 미래에 대한 내용이다. 세계사에서 아편 전쟁의 의미, 세계를 제패하는 신 무기로 등장한 전기통신, 또 하나의 제국이나 다름없는 미국의 헤게모니, 근대 세계의 시스템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스템이 탄생한 가운데 세계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생각해본다.

본문에 실린 내용의 대부분은 유럽과 미국의 역사학계에서 찬반 논란을 일으키며 화제가 되는

것들이다. 일본이나 한국에는 이런 논의들이 잘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저자는 자신의 견해를 조금 가미하여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정설을 의심하고 감춰져 있던 문제점을 제시하는 이 책을 통해 세계사를 더욱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고대에서 근대로 - 문명 탄생에 대해 말하지 않는 진실
- 제 2장: 역전의 세기 - 풍족한 아시아를 뒤쫓는 유럽
- 제 3장: 영국은 어떻게 세계 톱으로 올라선 것일까
- 제 4장: 근대세계에서 미래로 -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일까

<저자소개>

타마키 토시아키

교토산업대학 경제학부 교수.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1987 년 도시샤대학 문학부 문화학과를 졸업하였다. 1993 년 동 대학원 박사 과정을 중퇴하고 1996 년 교토산업대학 경제학부 강사와 조교수를 거쳐 2007 년 교수를 맡게 되었다. 2009 년 <북방 유럽의 상업과 경제 1550-1815 년>으로 오사카대학 문학박사 취득. 주요 저서로는 《해양제국 흥륭사》, 《유럽 패권사》등이 있다.

No.20161026-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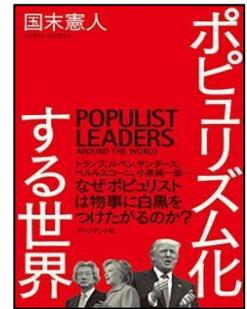
제목: THE WORLD OF POPULISM: 포퓰리즘화 되는 세계

저자: 쿠니스에 노리토

페이지수: 304

장르: 정치

출간일: 2016년 09월 29일



<내용소개>

세계에 급격히 퍼지고 있는 포퓰리즘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본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의 승패가 가려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치적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아온 힐러리에겐 온갖 다채로운 차별 발언과 망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트럼프가 맞설 수 있었던 데에는, 저소득·저학력 백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콘크리트 지지층의 힘이 컸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정제되지 않은 포퓰리즘이다. 엘리트와 부유층 중심의 기성정치에 신물 내고 분노하던 이들에게, 시종일관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트럼프의 발언은 다소 불쾌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통쾌함을 안겨주었다. 일부 학자와 언론은 트럼프가 전 세계에 포퓰리즘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그가 대선에서 패한다고 해도 이런 현상과 흐름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의 GLOBE 편집장을 맡고 있는 저자 또한, 세계로 퍼지는 포퓰리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기서 논하는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만을 얻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로 1) 멋대로 표적을 정해 돈키호테처럼 돌진한다, 2) 흑백주의에 기반해 세계의 모든 것을 적과 아군으로 나눈다, 3) 서민도 아니면서 서민인 척 연출한다, 4) 주위를 끌어들이며 민폐를 끼치고도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특징을 지닌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치가로는 트럼프를 비롯해 미국의 샌더스, 러시아의 푸틴, 프랑스의 사르코지와 르펜,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영국의 파라지, 일본의 고이즈미 등을 꼽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포퓰리즘이 횡행하는 이유, 포퓰리즘과 내셔널리즘의 차이, 미국에서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킨 이유와 우익이 지키고 있는 유럽 지역, 영국을 EU탈퇴로 인도한 국민투표의 함정, 푸틴이 80%나 되는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일반 사람들의 견해를 세상 밖으로 확실하게 고집어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더욱 두드러진다. 포퓰리즘 주의자들이 정권을 확실히 잡게 되면 마주하게 될 문제점들을 서술하며 마무리한다.

냉전 후 새로운 질서가 미처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등장한 포퓰리즘은 '나는 평범한 당신들과 같다'는 환상으로 무장한 벼락 출세자들을 다수 배출해냈다. 반지성주의와 결탁한 파시즘적 포퓰

리즘, 그로 인한 편협하고 잘못된 판단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책은 세계 정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추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포퓰리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왜 포퓰리스트가 세계적으로 날뛰는 것일까
- 제 2장: 냉전 후의 새로운 질서는 아직 확고하지 않다
- 제 3장: 인형 옷을 입은 민주주의의 시대
- 제 4장: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날
- 제 5장: 샌더스의 수수께끼를 살펴보다
- 제 6장: 국민투표의 덫에 빠진 영국
- 제 7장: 우익이 지키는 유럽 문명
- 제 8장: 푸틴은 왜 80%의 지지를 받는 것일까
- 제 9장: 포퓰리스트가 정권을 쥐는 때
- 마치며: 우리들의 '벼락출세한 자'

<저자소개>

쿠니스에 노리토

아사히신문 GLOBE 편집장, 아오야마가쿠인대학 불문과 비상근 강사. 1963년 오카야마 현에서 태어났으며 1985년 오사카대학을 졸업하였다. 1987년 파리 제2대학신문연구소를 중퇴하고 아사히신문에 입사했다. 파리지국 국장과 논설위원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아사히신문 일요판 GLOBE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포퓰리즘에 침식된 프랑스》, 《이라크 전쟁의 심연》, 《거대한 '실권국가' EU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살테러리스트의 정체》, 《사르코지》, 《미술랭 별 3개와 세계전략》,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이 있다.

No.20161026-005

제목: 뇌에 습관 들이기

저자: 오다 겐코우

페이지수: 206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10월 12일



<내용소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키는 '뇌의 습관' 익히기

누구나 다양한 고민과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그런데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매우 사소한 일이고 4%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개인과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만인 내용들이 태반인 셈이다. 이 사실이 꽤 많이 알려졌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고민과 걱정으로 사로잡힌다. 좋고 나쁨이 없는 일조차도 뇌가 불행 혹은 불쾌한 일로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저자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추앙하는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기관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자기 안팎의 부정적인 상태를 인정한 다음 빠르게 기분을 전환시켜 벗어나는 '양전사고'를 제창해왔다. 이 책은 양전사고를 응용하여 마이너스 감정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뇌에 습관을 들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뇌조차도 스스로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 여기곤 하지만, 실제로는 뇌도 장기나 근육과 마찬가지로 그 특징을 알고 훈련을 반복하면 자기 의도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뇌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불쾌함을 피하려 한다는 공통 성질을 이용해보도록 하자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뇌에 습관 들이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고민과 불안, 분노 등의 마이너스 감정을 줄이고 플러스 감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쁨과 즐거움 같은 플러스 감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다. 습관들이기는 총 7단계로 진행된다. <뇌에 관한 정확한 이론을 이해하기 → 직접 실행하기 → 실천 과정 되돌아보기 → 재실행하며 한계 돌파하기 → 즐거움을 맛보는 프로세스 따르기 → 실패해도 좋으므로 의식적으로 계속하기 → 실패해도 자동으로 행하며 의식하지 않을 때에도 계속하기>의 순서다. 1장에서 대략적인 개념과 흐름을 제시한 뒤, 2장부터 6장에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분노, 의무감, 후회, 불안, 불만에 하나씩 집중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설명한다. 마지막 7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생겨나는 기쁨을 강화하는 방법 및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법을 전한다.

“어떻게든 하겠다”는 마음이야말로 뇌를 움직이는 열쇠가 된다. 이 책은 읽기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 반복 실천하고 뇌에 각인시켜야 한다.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는 불필요한 고민과 걱정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이 책의 도움을 얻어 뇌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보길 바란다.

<목차소개>

- 제 1장: 뇌의 구조를 능숙하게 사용해 뇌에 습관을 들인다
- 제 2장: 분노의 응어리를 컨트롤 한다
- 제 3장: 의무감의 응어리를 컨트롤 한다
- 제 4장: 후회의 응어리를 컨트롤 한다
- 제 5장: 불안의 응어리를 컨트롤 한다
- 제 6장: 불만의 응어리를 컨트롤 한다
- 제 7장: 플러스 감정을 더욱 증폭시킨다

<저자소개>

오다 젠코우

Active Brain협회 회장, 주식회사 '르네상스 유니버시티' 대표이사.

1958년 시가 현 히코네 시에서 태어났다.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재)마쓰시타 정경속(The Matsushita Institute of Government and Management)에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지도 하에 인간교육을 연구하였다. 1991년 주식회사 '르네상스 유니버시티'를 설립하고 다수의 기업에서 <양전사고(陽轉思考)>를 중심으로 한 강연과 인재교육 실천활동을 하여 호평을 받았다. 1996년에는 링컨포럼을 세워 전국에서 입후보자 공개토론회를 실현시켰으며 그 회수가 현재 3000회를 넘었다. 또한 인정 NPO법인 <후지산 세계유산 국민회의> 운영위원장으로 세계유산등록 실적을 남겼다. 2004년부터 시작한 '액티브 브레인 세미나'는 전국에서 호평 받으며 개최 중이다. 《일본인의 신수》, 《신 양전사고》, 《(도해) 절대기역 메서드》 《최고의 인생교과서 역경(易經)》,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82가지 가르침》등 다수의 저서 및 편서가 있다.

※ <액티브 브레인 세미나> 참조 사이트: <http://www.oda-abs.com>

No.20161026-006

제목: 50대를 위한 공부법

저자: 와다 히데키

페이지수: 191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09월 30일



<내용소개>

노년에도 사회의 현역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50대를 위한 공부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50대'가 전 연령층 가운데 삶의 만족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82.6%가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30대와 40대에서 점점 줄어들며 50대는 66.9%만이 만족하고 있었다. 오히려 60~64세의 만족도는 71.6%라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50대만이 겪는 특별히 버겁고 팍팍한 상황이 있는 것 같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전 노인들도 사회에서 왕성히 활동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정년을 코앞에 두고 있거나 조기 퇴직의 압박 속에서 아직 길게 남아있을 제 2의 인생을 미리 준비해야만 50대를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정신신경학과 전문의이자 일류의 공부 방법을 설파해 온 저자는, 50세 무렵에야 오랫동안 꿈꾸었던 영화감독이 되었다. 저자는 이 타이틀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생을 보람차게 살아가기 위해 50대부터 꼭 해야 할 공부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노하우를 전하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일명 스펙을 위해 인풋 위주의 공부를 하지만, 중년층의 공부는 이제껏 살아오며 내면에 담았던 것을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노년에는 지식보다 자신만의 사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있는 곳에서 더 출세하기, 독립해 창업하기, 활발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등 목적에 따라 공부 방법도 달라진다. 어느 것이든 50대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하자.

본문에서는 왜 50세라는 나이에 새삼스럽게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독자들을 설득한다. 공부는 나이에 상관없이 스스로에게 희소가치를 부여해주며 퇴행을 방지하고 건강과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전두엽의 노화현상 때문에 50대부터 의욕저하가 나타나고,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울해지기 쉽다. 이런 장벽을 극복하고 유연한 사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서, 50세부터 시작하는 공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과 지금까지 쌓은 지식에서 새로운 아웃풋을 내는 비결을 논한다. 정신적으로 윤택한 노후를 위한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며 본문을 마무리한다.

저자는 40대~60대를 사춘기(思春期)가 아닌 '사추기(思秋期)'라고 칭한다. 사춘기는 아이가 성인

이 되는 과정이자 중성에서 남녀로 나뉘는 시기다. 사춘기에는 성인이 노인으로 변하며 남녀에서 다시 중성으로 회귀하고, 어떤 연령대의 방식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50대만 가질 수 있는 강점과 특징을 파악하고 놓쳐서는 안 될 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하자.

<목차소개>

- 제 1장: 왜 지금, 50세부터 공부가 필요할까?
- 제 2장: 50세부터 하는 공부의 장벽
- 제 3장: 50세부터의 공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
- 제 4장: 50세부터는 인풋보다 아웃풋
- 제 5장: 공부가 노후를 윤택하게 한다

<저자소개>

와다 히데키

일본신경학회 전문의, 임상심리사, 일본정신분석학회 인정 정신요법의, 일본내과학회 인정 내과의, 일본정신신경학회 정신과 전문의. 1960년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였다. 도쿄대학부속병원 정신신경과 조수, 미국 칼 매닝거 정신의학학교 국제 연구원 등을 거쳐 국제의료복지대학원 교수(임상심리학 전공), 가와사키이와이병원 정신과 고문, 히토츠바시 대학 경제학부 비상근강사, '와다 히데키 마음과 몸의 클리닉' 원장을 맡고 있다. 전문 분야는 노년정신의학, 정신분석학, 집단정식요법학이다. 1995년부터 1년간, 주 1회 고베 지진피해자의 그룹 치료 자원봉사를 했다. 201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후쿠시마 현 이와키 시 및 히로노마치에서 원전 폐로 및 제염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멘탈케어 자원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일본인으로서 최초로, 미국에서 더 인기 많은 정신분석학과 자기심리학의 국제연감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년의 사춘기(思秋期)》, 《감정적이 되지 않는 책》, 《치매정복-치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77가지 습관》, 《마흔을 위한 기억수업》 등 600권 이상의 저서가 있다.

No.20161026-007

제목: 하늘의 여행을 과학하다

저자: 이토 에리

페이지수: 224

장르: 과학

출간일: 2016년 09월 02일



<내용소개>

항공관제과학에 뜻을 품은 젊은 여성 과학자가 세계 곳곳에서 펼친 분투기

올해로 개항 15년을 맞은 인천국제공항의 1일 항공편 운항횟수가 올해 1000회를 돌파했다. 심야 시간을 제외하고 1분에 한 대 꼴로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셈이다. 그렇게 많은 비행기들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것은 '항공교통관제' 덕분이다. 도로 위의 자동차는 창문과 사이드 미러를 통해 다른 차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달린다. 항공기 조종사는 스스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제약이 있으므로, 관제관이 센터에 상주하면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하늘의 교통정리인 셈이다. 도착시각 지연을 줄여주거나 연료소비량과 소음 감소를 고려하면서, 파일럿에게 음성으로 항공기 고도와 속도 조정 지시를 내린다.

저자는 항공관제 연구에 힘쓰고 있는 젊은 여성 과학자로, 2012년 TED X Kyoto에서 스피치를 해 유명해졌다. 그녀는 어릴 적 하늘을 지나가던 비행기와 애니메이션 속 비행기 엔지니어를 동경하면서 연구자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공학 분야들처럼, 21세기의 항공관제 분야도 높은 수준의 사고능력을 지닌 컴퓨터를 통해 급격히 변화 중이다. 이 책에서는 세계의 이곳 저곳을 발로 뛰어다니는 저자의 경험을 통해 현재 및 미래의 항공관제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1장에서는 박사과정 1년차에 국제항공과학회의(ICAS) 주최 총회에 참석했다가 보고 듣고 느낀 바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젊은이들을 성장시키는 유럽의 토대와 자유분방한 유럽의 과학자들, 항공관제 연구의 정확한 대상, 컴퓨터의 활용 범위와 뇌 과학을 항공기 제어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룬다. 2장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유로컨트롤 실험연구소 경험과 더불어 관제관의 업무량, 차세대 항공관제 시스템 등에 대해 논한다. 3장에서는 도쿄의 전자항법연구소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미래의 항공관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비롯해 당시 배운 교섭 기술 등을 이야기한다. 4~5장은 항공업계의 거물인 NASA와의 만남과 NASA 에임즈 연구소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된 내용이다. 주인공이 만난 사람들과 행선지의 문화 및 풍습들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며 희로애락의 순간들이 유쾌하게 담겨 있다. 여성 과학자가 생소한 분야에서 분투하는 그녀를 독자들도 응원하게 될 것이다.

항공관제과학 관련 지식이 없어도 비행기나 공항에 흥미가 있다면 누구나 재미 있게 읽을 수 있

다. 이 책을 통해 저자와 함께 모험을 하며, 하늘 위 여행에 숨겨진 과학과 해당분야의 조류를 배워보고 목표에 도전할 용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가랑눈이 춤추는 빈의 공항에서 - 항공관제과학의 탄생

(슬로바키아는 어디? / 젊은이들을 키우는 유럽의 토양 등)

제 2장: 파리의 거리와 과학자들의 혼돈 - 항공관제관의 워크로드

(유로컨트롤 실험연구소 / 차세대 항공관제 시스템 구상? 등)

제 3장: 암스테르담의 분투기 - 2억분의 1의 리스크를 회피해라

(기적은 계산할 수 있는 것? / 레어 이벤트 등)

제 4장: 아메리카대륙에 상륙하다 - 항공업계의 거물 NASA를 목표로

(3·11직후의 샌디에고에서 / NASA가 주최하는 기술교류회의 등)

제 5장: NASA에서 하늘의 여행을 연구하다

(NASA 에임즈 연구소 / 항공관제과학의 아버지, Heinz Erzberger 박사 등)

<저자소개>

이토 에리

1980 년 교토에서 태어났으며, 2007 년에 도쿄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항공우주공학 전공). 국립연구개발법인 해상·항만·항공기술연구소 전자항법연구소 주간 연구원이다. 프랑스 유로컨트롤 실험연구소, 네덜란드 항공우주연구소, 도쿄대학, NASA 에임즈 연구소에서의 연구직을 거쳤다. 국제항공과학회의(ICAS)에서 McCarthy Award, John J. Green Award 를 수상하였다. '하늘은 하나'라는 모토를 갖고 세계의 하늘을 항공관제과학의 연구에 힘쓰고 있다. 2012 년 TED x Kyoto 에 등단.

No.20161026-008

제목: 줄야근을 버터내는 몸 만들기: 직장인을 위한 걷기의 기적

저자: 기무라 마사히로, 다나베 다이고

페이지수: 189

장르: 건강

출간일: 2016년 09월 26일



<내용소개>

현역 야구선수의 트레이너가 공개한다! '걷기'만으로 24시간 지치지 않는 신체 만들기

하루의 대부분을 책상 앞에 앉아서 보내거나 외근 때문에 바깥을 돌아다녀야 하는 직장인은 일부러 운동할 시간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매일 정시에 퇴근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야근과 비규칙적인 스케줄에 시달리고 틈만 나면 휴식을 갈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피로가 계속 쌓이다 보면 아무 것도 안 하거나 수면시간을 보충하는 것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 지점에 다다른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기초 대사량은 떨어지는데 섭취 열량은 늘면서 비만에도 가까워질 수 있다.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면 몸을 충분히 움직여줘야 하지만 일과 운동은 절대 양립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일본의 'IWA 아카데미'는 현역 프로야구 선수인 이와쿠마 히사시가 공동 오너이자 감수를 맡고 있는 전문 스포츠 아카데미다. 선수 생활을 하며 겪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는 비결을 운동선수를 꿈꾸는 아이들, 국내외 운동선수, 스포츠 활동을 하고 싶은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Recovery, Strength, Practice라는 3개 필드로 나눠 체계적인 노하우를 제공하는 IWA 아카데미의 두 디렉터는 특히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이 책을 집필하였다. 시즌 중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야구선수 이와쿠마 히사시처럼 최강의 신체를 만들기 위해, 직장인들에게 올바른 걷기 방법을 전수한다.

<걷기> 만으로 컨디션과 체력이 향상되고 업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전신을 움직이는 걷기야말로 직장인들이 일상의 움직임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제일 먼저,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 잘못된 걷기가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지적하면서 신체 곳곳에서 보내는 좋지 않은 신호들을 알려준다. 그 다음에는 퍼포먼스를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걷기 방법과 그를 통해 형성되는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친절하게 설명한다. 가장 중요한 R(회복) → 트레이닝 및 연습으로 S(강화) →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P(실천) 프로세스를 통해 더 강력한 신체 만들기에도 도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신을 하나로 연결하여 정돈할 수 있는 리커버리 엑서사이즈를 소개하며 끝맺는다. 필요한 경우 단계별 동작 설명과 이미지를 삽입하여 독자들이 자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신체를 혹사시키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유용할 내용이 가득하다. 걷기 방법을 바꿔 축적된 피로를 날려버리고, 산뜻한 컨디션으로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호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목차소개>

서장: 의외의 맹점! 걷는 방법이 업무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친다

제 1장: 알면 무서워진다!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걷기'

제 2장: 퍼포먼스 개선! 올바른 걷기가 좋은 흐름을 만든다

제 3장: 유능한 어른의 신체 만들기! <R·S·P 사이클 이론>

제 4장: 전신을 연결하여 정돈한다! 리커버리 워킹 엑서사이즈

<저자소개>

기무라 마사히로

IWA ACADEMY PRACTICE FIELD DIRECTOR, 유도접골사.

1979년생. 게이오기주쿠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기업을 거쳐, 10년간 퍼포먼스 코디네이터로서 활동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합한 연습방법과 숙달법을 제안했다. 서포트 실적 3만 레슨 이상, 다수의 강연과 이벤트를 개최했다. 현재는 IWA ACADEMY PRACTICE FIELD DIRECTOR 겸 프로 야구선수 이와쿠마 히사시의 피칭 메커닉스를 담당해, 아동부터 유명 운동선수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지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나베 다이고

IWA ACADEMY STRENGTH FIELD DIRECTOR, 침구 안마 마사지사.

1987년생.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롱비치 캠퍼스에서 운동과학을 전공했다. 2013-15 시즌은 미식 축구 X리그 소속, 메이지 야스다 파이리츠의 스트렝스 코치를 맡았다.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트레이닝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동서양 의학의 융합을 실현하는 지도 방법을 연구 중이다.

No.20161026-009

제목: 3학년 3반의 하나타로

저자: 쿠사노 아키코(글), 기타무라 유카(그림)

페이지수: 100

장르: 아동 문학

출간일: 2015년 09월 10일



<내용소개>

우리 반 칠판 뒤에는 요괴 '하나타로'가 살고 있다? 학급 괴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중고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관련된 괴담을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교정에 있는 동상이 밤 12시가 되면 움직이기 시작한다든가,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가 난다든가, 자율학습 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있다든가, 어느 때 어떤 행동을 하면 귀신이 나타나다든가 등등. 시간이 지나고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지만, 당시에는 등골이 오싹해지고 한 번쯤 확인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주인공인 타쿠마는 이제 막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소년입니다. 숙제 프린트를 교실에 두고 오는 바람에 다음날 일찍 등교하던 타쿠마는 같은 반 친구 카나와 마주칩니다. 카나는 자신들의 학급인 3학년 3반에 전해 내려오는 소문을 확인하겠다고 하며 이른 시간에 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반에는 '칠판의 하나타로 씨'라고 불리는 요괴가 살고 있는데, 칠판 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아침 일찍 제일 먼저 교실에 나타나 같은 학생인 척 섞여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 괴담이 사실이라면 반에 가장 먼저 와 있는 아이가 하나타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나와 타쿠마는 매년 모습을 바꿔가며 계속 3학년 3반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그의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서자, 누군가 벌써 와 있습니다. 3학년 수업 첫 날 전학 온 갈색머리 소년 '료'입니다. 타쿠마와 카나는 그 후 료를 유심히 지켜보고, 반에서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타로가 기분이 좋으면 교실에 꽃이 피고, 화가 나면 심령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 있었는데 정말 칠판에 꽃이 핀 것입니다. 타쿠마와 카나는 료가 정말 하나타로라며 확신합니다. 이 내용이 의도치 않게 반 아이들에게 퍼져나간 탓에 료는 요괴로 몰리며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담임선생님의 귀에까지 들어가 불호령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심령사진처럼 이상한 사진이 찍히는 등 수상한 일이 계속되자 료에게 의심의 눈길이 쏟아집니다. 교실 어딘가에 하나타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타쿠마와 카나,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료는 함께 '칠판의 하나타로'를 추적해 나갑니다. 마침내 밝혀진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도깨비 길, 지금 공사 중!》으로 제 49회 일본아동문학자협회 신인상을 받은 쿠사노 아키코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하나타로의 정체를 둘러싼 미스터리, 타쿠마와 료 사이의 우정이 잔잔하게

펼쳐집니다. 타쿠마와 비슷한 나이의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재미있게 읽을 것입니다.

<저자소개>

쿠사노 아키코(글)

후쿠오카여자단기대학 음악과를 졸업하였다. . 《도깨비 길, 지금 공사 중!》으로 데뷔하였으며 동
작품으로 제 49 회 일본아동문학자협회 신인상을 받았다. 제 32 회 후쿠시마 후쿠시마 마사미
기념 SF 동화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기타무라 유카(그림)

다마미술대학 졸업, 그림책으로는 《주먹밥 닌자》(제 33 회 고단샤 신인상 가작), 《달리기 달리기》,
《네네네의 고양이》, 《가자가자! 초등학교 1 학년》등이 있다.

No.20161026-010

제목: 오늘 하루, 나는야 판다!

저자: 오오츠카 켄타(글), 쿠사카 미나코(그림)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04월 20일



<내용소개>

호랑이가 동물원의 인기스타 판다의 대역을 맡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판다는 항상 인기가 많아 그 주변에만 사람들이 몰려들고 다른 동물들은 따분할 정도로 한가로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판다가 감기에 걸려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육사는 판다가 없으면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버린다면, 호랑이 타로에게 딱 하루만 판다의 대역을 맡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판다의 탈을 쓰고 사람들 앞에 나선 타로는 움직이기만 해도 모두가 호응해주자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하지만 나무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판다의 탈이 벗겨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정체가 발각됩니다. 손님들은 실망하며 돌아서던 그 때, 타로가 분풀이로 걷어찬 판다 탈이 멋지게 날아가 사육사의 머리에 쑥 들어갑니다. 손님들은 타로의 공놀이 재주에 감탄하며 다시 모여듭니다. 그 날 이후 판다와 호랑이 타로가 함께 동물원의 인기 스타가 됩니다.

동물원에서 펼쳐지는 유머러스한 하루를 담은 책입니다. 심플하고 알기 쉬운 이야기지만,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인간 심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4,5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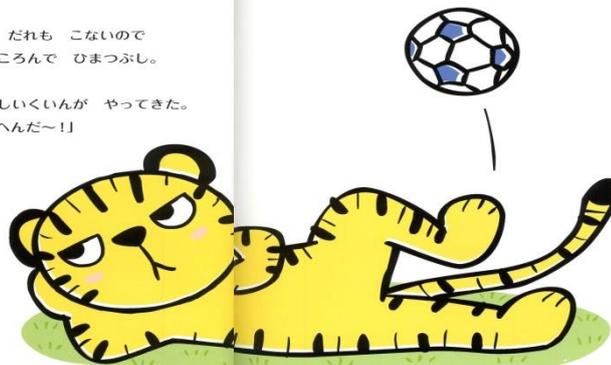
<본문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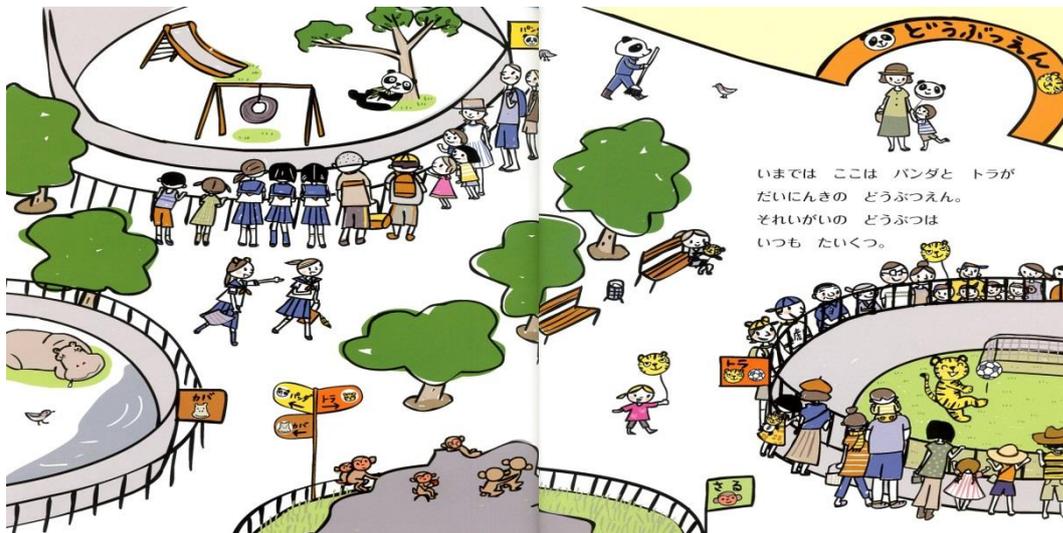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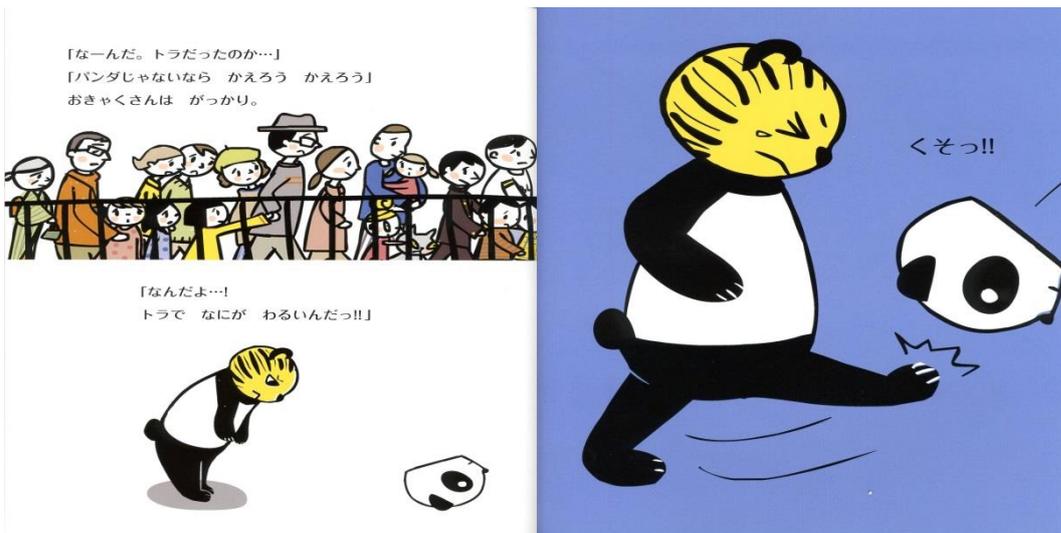


「きょうも ひまだなあ」

おきゃくさんが だれも こないので
トラたろうは ねころんで ひまつぶし。

そのとき とつぜん しいくんが やってきた。
「たいへんだー!」





<저자소개>

오오츠카 켄타(글)

사이타마 현 출신. 그림책, 그림연극 이야기 외에 각본 등도 집필하고 있다. 제14회 핀포인트 그림책 경연에서 입선했다. 그림책 작품으로는 《한과 분의 절반 나누기》, 《재는 것을 좋아하는 하카루》등이 있다.

쿠사카 미나코(그림)

미야기 현 출신. 조치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4회 핀포인트 그림책 경연에서 입선. 그림책으로는 《3명의 왕》시리즈, 《한과 분의 절반 나누기》, 《재는 것을 좋아하는 하카루》등이 있다.